

# 도멘 흐모리계의 본 로마네... 시간이 만든 부르고뉴의 향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34

포도밭은 파워와 웅장함으로 대변된다는데 와인은 우아한 향이 먼저 치고 들어오더니 부드러운 질감으로 여운을 남긴다. 음악으로 바꿔 말하면 힘찬 고전 교향곡을 여성 지휘자가 재해석해 부드럽고 깊은 여운으로 담아낸 식이다. 도멘 흐모리계(Domaine Remoriquet)의 '본 로마네 프리미에 크뤼 오 드쉬 데 말콩소르(Au Dessus des Malconsorts)'다.

흐모리계는 부르고뉴에서도 낚새 조르주에 자리한 가족경영 와이너리다. 부르고뉴에선 소유한 포도밭에서 포도를 직접 재배해 양조하면 '도멘'으로, 매입한 포도로 와인을 만들면 '메종'으로 부른다. 흐모리계는 도멘이다. 낚새 조르주와 본 로마네에 걸쳐 10ha 안팎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다.



왼쪽부터 도멘 흐모리계 본 로마네 프리미에 크뤼 오 드쉬 데 말콩소르의 2022, 2015, 2009, 2005 빈티지. /안상미 기자

도멘의 4세대인 질 흐모리계는 "유행이나 트렌드는 바뀌지만 흐모리계는 이전과 변함없이 각 테루아의 개성이 담긴 와인을 만든다"며 "테루아와 함께 해마다 다른 기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부르고뉴에서도 본 로마네 마을은 두

말할 나위 없는 피노누아의 최고 성지다. 천재가 태어날 때부터 달랐듯이 본 로마네 테루아도 태생이 그렇다.

흐모리계의 포도밭은 본 로마네의 14개 프리미에 크뤼 가운데 하나인 '오 드쉬 데 말콩소르'에 위치한다. 말 그대로 말콩소르 위쪽(오 드쉬 데) 사면으로 그랑 크뤼

인라타슈와 사실상 맞닿아 있다.

'도멘 흐모리계 본 로마네 프리미에 크뤼 오 드쉬 데 말콩소르'는 와인명에 모든 정보가 다 담겨있다. 도멘 흐모리계는 와이너리, 본 로마네는 위치한 마을이다. 프리미에 크뤼는 포도밭의 등급을, 마지막 오 드쉬 데 말콩소르는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한 포도밭 구획을 뜻하는 끌리마의 이름이다.

개별 지역명이 낮은 이들을 위해 서울 부동산 지도에 대입해 풀어해보면 이렇다. 일단 본 로마네는 부르고뉴에서도 누구나 선망하니 강남이다. 가장 유명한 '로마네 콩티'를 압구정, '라 타슈'를 청담동이라고 한다면 '오 드쉬 데 말콩소르'는 근접한 위치로나 명성으로나 반포쯤이라고 보면 된다.

흐모리계가 빈포 와인, 아니 오 드쉬 데 말콩소르를 양조하는 방식은 전통 그대로다. 당도와 산도, 타닌이 균형을 이루는 최상의 수확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포도알 뿐만 아니라 껍질, 씨까지 모두 맛을 본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온에서 발효해 향과 타닌을 부드럽게 추출한다. 잘 익은 줄기는 따로 보관했다가 해에 따라 구조

감이나 신선함을 주기 위해 첨가하기도 한다. 숙성에서는 10% 정도는 아카시아 배럴을 사용해 아로마가 더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와인을 빈티지별로 살펴보는 버티컬 테이스팅 시간이다. 시간의 마법을 느끼려면 최근부터 역순으로 올라가야 한다.

2022 빈티지는 뜨거웠던 해를 그대로 반영했다. 아직 생생한 과실미를 가지고 향도 타닌도 강렬하다. 미래가 기대되는 청년 시절 본 로마네다.

2015 빈티지는 빈티지 힘과 우아함의 균형점 위에 딱 위치했다. 과실과 꽃향, 미네랄이 촘촘한 타닌과 어우러졌다.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미래의 모습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상태다.

이제 시간이 빛어낸 부르고뉴의 향을 제대로 느껴볼 차례다.

2009년은 따뜻한 해였다. 포도가 충분히 익어 풍성하면서도 등글며, 시간 속에서 우아하게 숙성됐다. 초보 와인이라도 본 로마네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만한 빈티지다.

/smahn1@metroseoul.co.kr



metro

## 문화 단신

### CGV·롯데시네마, 단독 개봉작으로 여름 공략

호러·애니·공연 실황 장르 확장  
흥행 IP·특화관으로 관객 공략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이한 7월, 국내 극장가를 대표하는 멀티플렉스 CGV와 롯데시네마가 오직 자사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단독 개봉작' 카드를 꺼내 들고 정면 승부에 나선다. 극장 관객들의 파편화된 취향을 정교하게 맞추기 위해 호러, 애니메이션, 콘서트 실황 등 다채로운 라인업을 구성해 관객몰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 ◆CGV, 장르 다각화로 승부

CGV는 월간 단독 입주작 시리즈인 '씨집에 가면'의 7월 라인업을 공개하며 포문을 열었다. 스릴러와 애니메이션, 공연 실황을 아우르는 촘촘한 라인업이 특징이다. 1일 개봉한 블러디 액션 스릴러 '레디 오어 나잇: 죽음의 숨바꼭질'과 8일 개봉하는 NEON의 신작 호러 '키퍼'가 무더위를 날릴 준비를 마쳤다. 특히 '키퍼'는 영화 '통레그스'의 오스굿 퍼킨스 감독과 '백룸' 제작진이 의기투합해 기대를 모은다.

인기 만화 원작의 '극장판 암살교실 모두의 시간'과 한국판 라이온 킹으로 불리는 뮤지컬 실황 '뮤지컬 푸른 사자 와니니'도 개봉했다.

로큰롤의 왕 엘비스 프레슬리의 전설적 무대를 담은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콘서트'가 IMAX 포맷을 포함해 개봉하며, 그룹 NCT의 제노-재민 주연의 스포츠 성장 드라마 '와인드업: 더 무비'도 베일을 벗는다. 5일에는 일본 인기 밴드 '미세스 그



롯데시네마 7월 단독 개봉 루시픽 라인업.

/롯데시네마

린 애플'의 도쿄 스타디움 공연 실황을 단독 생중계한다.

#### ◆흥행 IP '루시픽' & '광음시네마'

롯데시네마 역시 검증된 흥행 시리즈와 차별화된 음향 특화관을 무기로 맞붙을 놓는다. 단독 브랜드인 '루시픽'과 '광음시네마' 라인업으로 극장 관람의 매력을 극대화한다. 먼저, 일본 개봉 당시 6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극장판 도라에몽: 신 친구의 해저비밀성'이 1일 개봉했다. 시리즈 최초로 'SUPER·MX4D' 포맷을 도입해 오감 만족을 선사한다. 같은 날, '스크림', '서비스스' 등을 유쾌하게 비튼 레전드 호러 코미디 '무서운 영화'도 상영을 시작했다.

22일에는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 90%를 기록하며 북미에서 화제를 모은 N

EON의 호러 영화 '호킵'이 국내 호러 팬들의 심장을 겨냥한다.

압도적인 사운드로 몰입감을 높이는 광음시네마에서는 8일 디즈니의 오션 어드벤처 '모아나'를, 29일에는 전 세계가 기다려온 블록버스터 '스파이더맨: BRAND NEW DAY'를 상영해 온몸으로 느끼는 거침없는 타격감과 스펙터클을 전달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관객들의 발걸음을 잡기 위한 멀티플렉스 간의 장의 경쟁이 뜨겁다. 대작 상영 외에도 각 극장만의 색깔을 담은 단독 개봉작과 특화관 라인업이 울림 극장가를 찾는 관객들에게 넓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웹툰 '유미의 세포들', 뮤지컬로 무대 확장

샘컴퍼니·스튜디오N 5년 공동기획  
내달 23일까지 CJ토월극장 공연

글로벌 누적 조회수 35억 뷰를 기록한 네이버웹툰 '유미의 세포들'이 창작 뮤지컬로 관객과 만났다. 웹툰과 드라마를 넘어 무대로 확장된 '유미의 세포들'은 원작의 감성과 메시지를 새로운 공연 언어로 풀어내며 성공적인 초연의 막을 올렸다.

창작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첫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작품은 이동건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샘컴퍼니와 스튜디오N이 5년간 공동 기획·개발한 프로젝트다. 방대한 원작 서사를 약 160분으로 압축하면서도 유미의 내면과 세포들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현해 개막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무대는 웹툰 특유의 상상력을 공연 예술로 구현한 점이 돋보인다. LED와 영상 기술을 활용해 유미의 머릿속 세포마음을

시각화했고, 개성 있는 의상과 디자인으로 재탄생한 세포 캐릭터들이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 여기에 뮤지컬에서는 이례적으로 스크린 자막을 도입해 관객들이 넘버의 가사를 함께 음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미가 아닌 세포들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전지적 세포 시점'을 통해 원작의 핵심 메시지인 '내 삶의 주인공은 나'를 더욱 선명하게 전달한다.

배우들의 열연도 초연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유미 역의 티파니영과 김예원은 각기 다른 매력으로 캐릭터를 표현했으며, 원작에는 없는 오리지널 캐릭터 '109' 역의 최재림과 정택은 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사랑 세포 역의 김소향과 유리아 역시 유미의 감정을 섬세하게 이끌며 극의 감동을 더했다.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은 오는 8월 23일까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된다.

/신원선 기자



유미의 세포들 공연.



/샘컴퍼니

## 메트로 한줄뉴스



- ▲ 시진핑 "대만 독립 분열세력 타격해야" /사진뉴스
- ▲ 외교부 "美 하원 법사위 보고서, 쿠방 측 주장만 담아 유감"

- ▲ 트럼프, 지난해 '美 대통령' 브랜드로 22억 수익... 이해충돌 논란
- ▲ 이란, 카타르 회담 마무리... 美 면담 없이 중재국과 회의

- ▲ 트럼프, 임산부 입국금지 검토... '원정출산' 겨냥
- ▲ 워시 연준 의장, 트럼프 압박에도 "연준 독립성 변화 없을 것"